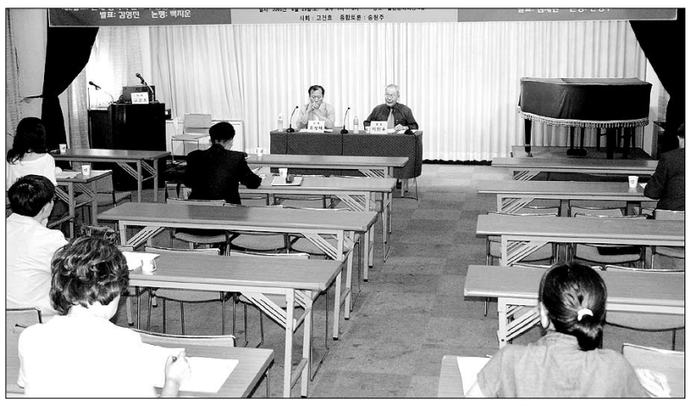
'그들만의 잔치' 학술 발표회, 문제점과 대안

학술발표회의 계절이다. 발표자에게 학술발표회는 자신의 최근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며, 청중들에게는 최신 연구동향을 가늠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 같은 학문적인 소통은 불교학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다. 하지만 학술발표회는 언제부턴가 찾는 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돼 버려, 학문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화 · 대중적 이슈 개발 나서야



텅빈 학회장. 불교계 학회뿐 아니라 인문학계 학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돼 버렸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청중 20~30명뿐 … 관련 전문가 거의 참석 안해
발표회 잦아 겹치기 출연 · 논문 재탕 부작용도
공동 개최 통해 참여 · 질적 제고 유도를

썰렁한 학술발표회장

현재 활동 중인 불교학회로는 한국불교학회 · 불교학연구회 · 한국선학회 · 보조사상연구원 · 인도철학회 · 한국선문화학회 · 한국정토학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몇 곳은 춘 · 추계 학술발표회 외에도 월례발표회를 개최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회 수나 학술발표회 빈도수 면에서 불교학계는 인문학 분야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학술발표회 현장을 가보면 그 썰렁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이 수백명인 학회의 발표회를 가봐도 청중은 20~30명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발표자와 논평자 그리고 학회 임원과 진행자일 정도로 불교학계 학술발표회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주최 측은 논평자를 두 명씩 붙여 참석을 유도해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불교학 연구자가 가장 많은 동국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국대에 재직하는 교수들조차도 참석해서 함께 하는 이가 많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같은 현실에서 학술발표회 의미는 당연히 반감되기 마련이다. 발표 주제와 유관한 전공자가 참석하지 않다 보니 학술발표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발표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토론 없는, 맥 빠지고 형식화된 학회가 돼 청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

중진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학술발표회가 박사과정 또는 갓 박사를 받은 이들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중진학자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신진학자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진 학자들의 무관심 속에 불교학계는 신진학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구간의 조화에 기반한 균형잡힌 불교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처럼 학자들조차 학술발표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학자들은 "참가해야 할 학술발표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첫째 이유로 꼽는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학술발표회를 다 찾아다니기 벅차다는 것이다.

최연식 목포대 교수(불교사상사)는 "학술발표회가 많아지면 불교학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발표논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불교학 관련 박사가 160여명인데, 그 가운데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들은 대략 60명 내외. 이 적은 인원이 10여개에 달하는 학회의 행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불교학자는 "심지어 같은 논문을 재탕해서 발표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히 학술발표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학술발표회의 질 저하 및 학회의 차별성 약화를 낳는다. 궁극적으로 학회의 존립 근거에 대한 위협요인이 된다.

하지만 학술발표회가 많고 적음에 앞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학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평래 한국불교학회장은 "다른 학자들이 애써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질문하고 격려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학회의 차별화가 관건

학회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회 성격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전문적인데 대중적인 방식을 지향하다보니 부조화가 발생한다"며 "학술발표회의 성격을 전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으로 명확히 구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적인 주제라면 소수 전문연구자만이 참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적인 주제라면 공감대가 넓은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학술발표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학회가 전문화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불교생태철학만 다룬다든지, 고려불교사만 다룬다든지 하는 특정 주제로 특화돼야 한다는 것. 반면 대중화를 지향한다면 이슈 개발이 관건이 된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종교학)는 "현행 불교학 주제들은 지나치게 교학 중심이어서 이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과 유리되지 않은 불교학이 되기 위해서는 신행과의 연관성을 감안한, 이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유사한 학회들이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불교학자들은 "학술발표회라도 공동으로 개최해 활발한 참여와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불교학회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학회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정기적으로 학술활동을 하는 불교계 학회는 10여곳 내외. 이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해 불교학연구회 · 한국선학회 · 보조사상연구원 등이 활발하다. 이들 불교계 학회는 인문학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춘 · 추계 정기학술대회와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을 열고, 학회지를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0여곳 활동 … 재정 등 어려움 많아

학회당 이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연간 3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은 저조해 회비 의존도는 매우 낮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불교계 학회의 활동은 놀라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학계의 이 같은 저력은 학회를 꾸려가는 임원들의 큰 원력과 드러내지 않은 불교계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홈페이지(www.hanbulhak.or.kr)에 올라와 있는 후원금 내역은 불교계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회를 꾸려가는 어려움에는 재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회의 등급을 정하고, 학회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준에 따라 학회를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회지 제출 원고를 평가해서 40%를 탈락시켜야 하고, 학회지를 제때 발행해야 하는 등의 스트레스, 학회 등급을 유지 또는 상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모두 학회 임원진의 몫이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4>

느린 삶과 주파수

과학의 역사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철학에서 존재론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학은 존재의 모습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파동을 활용한다. 즉 물체에 파동을 보내고, 물체가 파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파동은 파도와 같이 물이 높고 낮은 모양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전파하는 모양을 말한다.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해일 역시 지진으로 생긴 막대한 에너지가 파동의 모습으로 바닷물을 통해서 전달된 모습이다.

소리나 빛 역시 파동이다. 파동의 높고 낮은 모습이 일초에 몇 번 변화하는가를 주파수라 하고, 높낮이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과학의 역사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철학에서 존재론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학은 존재의 모습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파동을 활용한다. 즉 물체에 파동을 보내고, 물체가 파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파동은 파도와 같이 물이 높고 낮은 모양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전파하는 모양을 말한다.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해일 역시 지진으로 생긴 막대한 에너지가 파동의 모습으로 바닷물을 통해서 전달된 모습이다.

소리나 빛 역시 파동이다. 파동의 높고 낮은 모습이 일초에 몇 번 변화하는가를 주파수라 하고, 높낮이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파장 짧을수록 빠르고 거대한 에너지 방출
치열한 경쟁으로 지칠땐 나를 들여다보자

주파수가 높으면 1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진다. 1초에 많은 수의 높낮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많은 정보량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동으로 얼마나 큰 물체를 알아낼 수 있는가는 파동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가시광선의 파장은 마이크론(1mm를 1000정도로 쪼갠 것)정도 밖에는 구분해 낼 수 없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보기 힘든 이유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파동을 쪼아주어야 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서 방출되는 원자선 파장은 매우 짧다. 가시광선 파장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X선을 다시 1000등분한 정도의 크기다.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원자선의 파동은 세포의 핵까지 침투해서 유전자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에 쪼인 사람은 대부분 유전자 손상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또한 주파수가 짧을수록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다는 데 착안해 파동의 주파수를 높여서 통신에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주파수가 기가 단위(1초에 약 10억 번 진동)이다. 일초에 약 10억 개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물질의 본질을 알기 위한 역사, 그리고 많은 정보를 빨리 전파하는 역사는 파장이 짧은 빛을 다루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박자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주파수 경쟁, 그리고 작은 세계를 보려는 경쟁이 사람들을 바쁘게 지치게 만드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심장의 박동은 기껏해야 일초에 100번 이상을 진동하지 않고, 신경 신호의 전달 신호 역시 수천 헤르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빠르고, 많은 정보를 추구하는 대열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경쟁의 대열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외부에서 주어지는 파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심연에서 나오는 본질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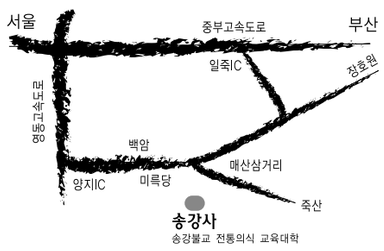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OO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OO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OO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 점안의식	OO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